

임금증가율, 대졸 186% · 중졸 144%

학력별 임금 격차 확대...절대액 큰 상황서 증가율도 벌어져 전공별 취업률, 의약 83.2% · 공학 71.3%...교육은 50.8%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근로자의 임금과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근로자의 임금은 186.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고졸 근로자의 임금은 168.8%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한 중졸 이하의 경우 144.0%에 불과했다. 월 평균 임금의 절대액은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의 절대액이 큰 상황에서 임금 증가율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졌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절대액 규모 격차

도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학 내에서는 전공에 따라 취업률이 크게 달랐다. 2015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83.2%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71.3%로 뒤를 이었다. 이어지는 사회, 자연, 예체능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이 50.8%로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대체적으

로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예체능이 2012년부터 인문계열을 넘어선 것이 유일한 차이이다. 취업률을 전공 선택 기준과 연계해서 보면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고른 집단의 취업률이 7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변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취업률은 66.4%에 불과했다. 전공 선택 기준과 현재 받는 임금 사이의 관계도 나타났다.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고른 집단의 월평균 임금이 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집단은 204만원 수준에 그쳤다.

수익성 ↓, 환율 · 금리 리스크 ↑

자동차 업계가 고단한 2017년 연말을 보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8.5%, 2015년 6.9%, 2016년 5.5%에서 올해 3분기 5.3%까지 떨어졌다.

기아차의 영업이익률 역시 2014년 5.5%, 2015년 4.8%, 2016년 4.7%에서 올 3분기 0.9%까지 하락했다. 중국 판매량 급감과 통상임금 1심 일부 패소의 영향이다.

자동차업계의 올해 1~3분기 이자보상배율은 역시 심각하다.

CB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운송업종의 올해 1~3분기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1.9를 나타냈다. 이는 업종 최하위로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자비용에 쓰여진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자동차부품사 23곳의 이자보상배율은 10.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보다 5.8p 하락했고 2015년(17.6)과 비교하면 6.7p 떨어졌다.

업계의 발흥적인 현대자동차의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24.91, 2016년 18.44, 올해 1~3분기 15.13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대원산업(-39.55p), 현대모비스(-28.02p), 현대파워텍(-16.87p), 세방전지(-11.84p) 등의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보다 10p 이상 하락했다.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받은 현대차의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의 등급이 하락할 경우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그룹의 이자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겨울철 감기 뚝! 우리 차드세요”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겨울철 감기 예방 및 면역력 향상을 돕는 도라지, 생강, 대추, 유자, 꿀 등으로 만든 우리 차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도라지, 생강, 대추, 유자, 꿀 등으로 만든 우리 차를 최대 27% 할인 판매한다.

다자녀 가구, 85㎡ 초과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9일 공포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넘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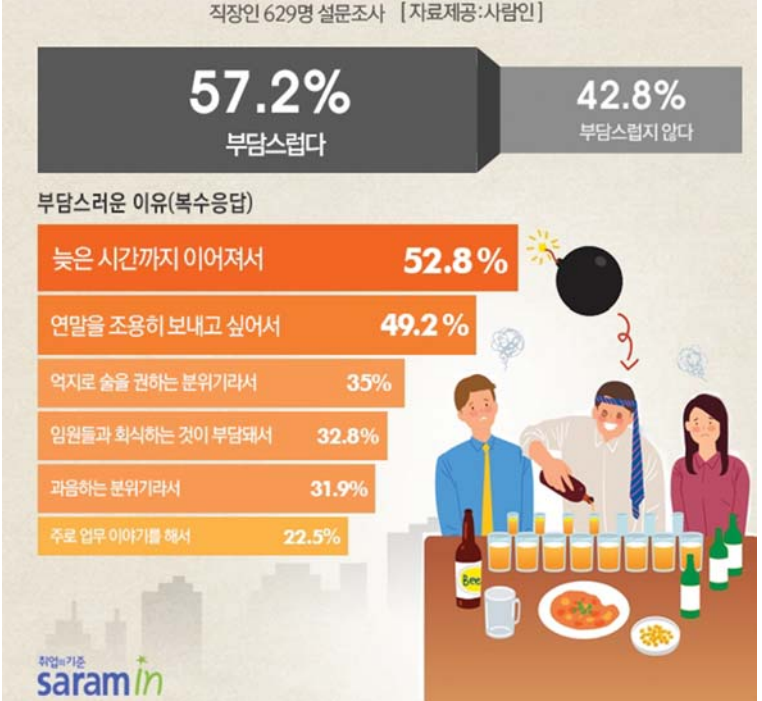
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직장인 57%. 송년회식 부담스러워!



직장인 5명 중 3명 “송년 회식 부담”

음주 강요가 '최악'

한 해를 잘 마무리하지는 의미에서 많은 기업들이 송년 회식을 진행하지만 정작 참가하는 직장인들은 송년 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629명을 대상으로 '송년 회식 부담감'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은 송년 회식 참여가 부담스럽다(57.2%)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1.8%로 남성(49.6%)보다 22%p 이상 높았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서'(52.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49.2%), '역지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라서'(35%), '인원들과 화식하는 것이 부담해서'(32.8%), '과음하는 분위기라서'(31.9%), '주요 업무나 성과 이야기를 해서'(22.5%), '날짜를 무리하게(금요일, 휴일, 1박2일 등) 잡아서'(18.1%), '장기지방 등 준비해야 해서'(14.2%)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주로 하는 송년 회식 방식은 '음주가무형 회식'(70%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송년 파티 형태의 회식'(24.8%), '호텔 뷔페 등 고급스런 식사 회식'(7.8%), '점심 회식'(7.2%), '가족풍만 회식'(2.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회식은 '저녁 대신 점심 회식'(28.9%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콘서트,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 회식'(22.6%), '베뉴, 일정 등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회식'(22.4%), '호텔 뷔페 등 고급스런 식사'(16.9%), '송년 파티 형태의 회식'(16.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회식을 아예 안 하길 원한다'는 응답도 13.4%였다.

직장인이 뽑은 송년 회식 최악의 비매너는 '역지로 술 권하기'(32%)였다. 다음으로 '집에 못 가게 불참하기'(24%), '했던 얘기 또 하기'(12.4%), '술 취해 시비 걸기'(11.9%), '부담스러운 농담이나 스킨십 하기'(8.0%), '없는 사람 합당하기'(5.2%), '눈치보다 일찍 도망가기'(2.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응답자 중 34%는 올해 송년 회식을 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송년회식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26.2%가 '여행 등 미리 정해진 일정 핑계'를 선택했다. 또한 '본인 건강 핑계'(22.4%), '솔직하게 불참 의사를 밝힘'(19.6%), '생일, 제사 등 경조사'(12.1%), '부도남 등 가족 건강 핑계'(10.7%), '말 없이 불참'(3.7%), '거래처 미팅 등 업무 처리'(2.8%) 등의 순이었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